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최 수 형*

초 록

이 연구는 남자청소년의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여자청소년의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과모형에서 남녀 모두 기존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피해경험과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정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전통적 성역할의 영향력은 여자청소년에게서만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강요받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은 여성에게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못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전통적 성역할의 효과를 밝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구성하는 요인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성별 차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I . 문제제기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논의는 피해자학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부 소수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다수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특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삶의 질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진행된 경험적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Gender)이라는 변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나타났다(Garofalo, 1979; Baumer, 1985; Warr 1990; Thompson and Norris 1992; Ferraro, 1995; 노성호 · 김지선, 1998; 이성식, 2000). 하지만 상당부분의 논의는 성을 통제변인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식의 설명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나타나는 성비의 문제에 대해 보다 다양한 접근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Goody, 1997; Madriz, 1997; Smith and Torstensson, 1997; Scoot, 2004; Snedker, 2006; 김지선, 2004a).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May and Dunway, 2000).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는 다른 사회적 경험과 활동영역의 차이 등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성인에 비해 삶의 영역에서 더 많은 통제와 제재를 가지고 올 수 있어 그것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가 더욱 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그 당시의 생활 뿐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 성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예측인자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Goody,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고찰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개념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연구는 1970년대 중반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Clemete and Kleiman 1976, 1977; Baumer, 1978; Garogalo, 1979; May, 2001 재인용). 국내에서는 1990년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연구가 진행되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 중이다(최인섭·김지선, 1997; 노성호·김지선, 1998; 이성식, 2000; 박철현, 2005; 김지선, 2004a).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논의는 개념측정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몇몇의 학자들에 의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피해자가 될 위험성에 대한 인식' 혹은 '범죄에 대한 우려'로 개념화되었다(Concklin, 1975; Baumer, 1985). 하지만, Warr and Stafford (1983)는 인지된 범죄피해의 위험성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하게 설명해주는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범죄에 대한 우려 역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Erskein, 1974). 이에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인지된 위험성이라는 개념과 구별되어 '범죄피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된다(Ferraro, 1995).

또한 최근에는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측정방식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Warr 1990; Rountree, 1998). 즉, 특정 범죄유형에 대한 두려움을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범죄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거나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등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Hollander, 2001; Madriz, 1997; Merry, 1981; Snedker, 2006 재인용; Moore and Shepherd, 2007).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설명모형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설명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첫번째가 피해경험

모델(victimization model)이고 두 번째가 무질서모델(disorder or incivility model)이다. 먼저 피해경험모델에 대해 살펴보자. 초기의 피해경험적 접근의 논의는 직접적 피해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Lewis, 1980; 최인섭·김지선, 1997 재인용). 하지만, 실제 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직접적 범죄피해경험 뿐 아니라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의 중요성에 주목한다(Liska et al. 1988; Skogan and Maxfield 1981; Smith and Smith 1982; Reid and Konrad 2004 재인용). 하지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피해경험모델은 범죄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Gray, 1991).

한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무질서모델은 개인적 차원의 요인을 넘어서서 보다 구조적 측면에 주목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특징을 강조한다. 무질서모델은 다시 개념적으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가 그것이다(LaGrange, Ferraro, and Supancic, 1992). 사회적 무질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것으로 노숙자, 문제청소년, 불량패거리, 술 취한 사람등과 같은 이웃의 존재정도를 의미한다. 한편 물리적 무질서는 지역사회의 환경으로 빈 집이나 버려진 차, 쓰레기가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가로등이 없어서 후미진 곳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무질서한 지역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wis & Salem, 1986; Gates & Rohe, 1987; LaGrange et al., 1992; Skogan, 1990; Franklin et al. 2008 재인용). 게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무질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 and McGrath 1995; May and Dunway, 2000). 특히 물리적 무질서보다 사회적 무질서의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Ferraro, 1995; May and Dunaway, 2001). 반면, 몇몇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물리적 무질서는 인지된 피해위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범죄의 두려움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erraro 1995; LaGrange et al. 1992). 이렇게 두려움의 무질서모델에 대한 상반된 논의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함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의 요인을 넘어서 구조적 측면의 요인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분명 가치 있는 작업이다.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관련 논의는 앞서 살펴본 설명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성(gender),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역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두었다. 그 가운데 남성, 여성이라는 요인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Garofalo, 1979; Baumer, 1985; Warr 1990; Thompson and Norris 1992; Ferraro, 1995; 노성호 · 김지선, 1998; 이성식, 2000; 김지선 2004a). 즉, 어떠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더라도 성과 두려움간의 관계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에 대해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피해경험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제기가 나타나게 된다. 즉, 앞서 살펴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설명모형 가운데 피해경험모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범죄피해경험이 낮기 때문에 두려움정도가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두려움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Clemente and Kleiman 1977; Ortega and Myles, 1987; Stafford and Galls, 1984; Warr, 1984; Madriz, 1997 재인용).

이러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피해경험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여성 특유의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에 집중하였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감정적인 측면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Braungart et al. 1980; Moeller 1989; Keane 1995; Parker and Ray 1990; Skogan and Maxfield 1981). 하지만 이러한 접근의 논의들은 암묵적으로 남성의 두려움이 기준이 되어 여성의 두려움은 비정상적인 수준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Reid and Konrad, 2004).

이에 피해경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두려움 정도가 높은 것은 범죄학 자체가 남성중심적 학문으로 여성의 특수한 형태의 범죄피해유형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즉, 피해경험을 살펴볼 때 여성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특수한 범죄유형인 성관련범죄나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유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Warr, 1984 1985; Ferraro, 1995 1996). 또한 이러한 범죄유형의 신고율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아 ‘숨은 피해(hidden victimization)’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mith and Torstensson

1997; Scoot, 2003).

한편, 여성의 높은 두려움 정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범죄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Ferraro, 1996). 즉, 성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비폭력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분리하여 살펴보면 성관련 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두려움에서는 성차가 사라지고 성관련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만 성차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성폭력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된 것으로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두려움에서는 성 차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난 성 차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즉, 범죄피해경험으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거나 범죄유형을 세분화하여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는 등의 논의방식으로 는 여성과 남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근본적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단순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를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식의 설명을 넘어서 다양한 측면의 분석으로 성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Garofalo 1979; Stafford and Galle 1984; William and Marie 1997; Reid and Konrad 2004; Sutton and Farrall 2005; Snedker, 2006; Moore and Shepherd 2007; 김지선, 2004b).

그 가운데 범죄의 두려움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개인적 수준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통적 성역할 사회화’에 따른 설명에 주목하고 있다(Goody, 1997; Sutton and Farrall, 2005; Snedker, 2006; 김지선, 2004a). 즉, 성차별적인 사회화를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전통적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두려움간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두려움 연구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그동안 고려되지 못했던 여성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다. 이들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유로 부여하는 사회적 압력 즉, 전통적 성역할 사회화과정으로 여성은 여성다운 행동과 태도를 요구받고 남성은 남성다운 행동과 태도를 요구받는다. 결국 겁, 수동성, 의존성이라는 여성의 사회적 특징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 여성들로 하여금 범죄를 두려워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용맹, 적극성, 독립성이라는 남성의 특징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어 남성들로 하여금 범죄를 덜 두려워하도록 작용한다(Goody, 1997; Sutton and Farrall, 2005; 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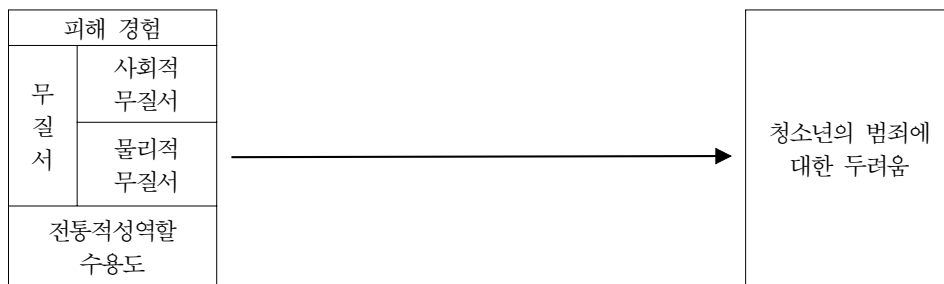
선 2004b). 하지만 이들의 논의에서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틀에서 설명해낼 수 없다. 이에 남성과 여성의 양 측면을 모두 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Reid and Konrad, 2004). 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다보니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되었던 설명요인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면서 남자청소년의 두려움과 여자청소년의 두려움을 구성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 분석틀

연령과 두려움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Clarke and Lewis 1982; Clemente and Kleinman 1977; Stafford and Galle 1984). 이에 청소년의 두려움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몇몇 학자에 의해서 폭력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유형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정 범죄유형에서는 두려움에 대한 연령 효과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ountree, 1998; LaGrange et al, 1992). 또한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Parker, 1988); Ferraro, 1995; May, 2001 재인용).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전체 표본 가운데 일부분으로 단지 통제변인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노성호 외(1999)는 청소년들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 청소년의 경우 두려움이 성인에 비해 높고 낮음을 논의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정작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성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진 성 이라는 변수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성이라는 변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두려움에 있어서 구성하고 있는 요인의 차이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아래의 연구모형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설명모델로 제기되었던 피해경험요인과 무질서요인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난 성비의 문제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전통적 성역할수용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전국단위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이후 KYPS)¹⁾에서 ‘범죄에 대

1) KYPS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식으로 2003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중학교 2학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역별 목표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학교 수는 12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학교추출은 학교별 중학교 2학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하여 추출된 학교의 중학교 2학년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본이 상실될 경우, 표본을 대체하지 않고 횡단적 · 종단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한다. 2006년도에 실시한 4차 조사가 완료된 현재 표집 유지율이 90.5%로 학생을 기준으로 3,121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성공적인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김기현 · 임희진, 2007).

한 두려움'과 그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4차년도 자료만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주요변인의 측정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 피해에 대해 무서워하며 불안해하는 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Ferraro 1995; May 2001; 김지선 2004a). 이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학교나 주변에서 누군가 해칠지 모른다'와 '동네에서 누군가 해칠지 모른다'의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실제 조사 문항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하여 사용한다²⁾. 이에 대한 응답 방식은 '전혀느끼지 않는다'의 1점에서 '항상느낀다'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직접적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경험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피해경험여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여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따돌림당하기', '협박당하기', '심하게 맞기'의 네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즉, 4가지의 유형 가운데 한가지의 피해경험이라도 있으면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³⁾.

2) 청소년의 경우 장소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특징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국한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

3) 물론 4가지의 피해경험은 그 심각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인지된 범죄피해의 심각성과 두려움간의 관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 정도에 따른 구분보다는 청소년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피해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직접적 범죄피해경험 여부와 두려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인지된 무질서정도

(1) 물리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는 범죄에 열악한 물리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학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우리 학교 주변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우리 학교에는 뺑뺑기,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 ‘우리 학교 주변에는 뺑뺑기,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 ‘우리 동네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우리 동네에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의 여섯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방식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물리적으로 무질서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는 불쾌한 행동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존재인식 정도로 이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교 주변 그리고 동네에서의 사회적 무질서 정도를 측정한다. 이에 사회적 무질서 정도는 ‘우리 학교에는 비행 청소년이 많다’, ‘우리 학교 주변에는 비행 청소년이 많다’, ‘우리 동네에는 밤에 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우리 동네에서는 십대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의 네 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된다.

4) 전통적 성역할 수용도

전통적 성역할 수용도는 ‘남자는 사회적 성격이 중요하다’,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남자는 어느 정도 남을 지배할 줄 알아야 남자답다’,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보기 좋다’, ‘여자는 암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답고 좋다’의 6가지 문항을 사용한다. 이 문

항에 대한 응답척도 역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수용도가 높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먼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정도와 그와 관련된 주요 변인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Amo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과모형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밝힌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이 1,725명이며 남자청소년이 1,724명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50%로 동일하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정도로 가정 내 수입은 150만원미만의 경우 7.8%, 150만원이상 250만원 미만이 22.7%, 250만원이상 350만원미만이 31.1%, 350만원이상 450만원미만이 19.1%, 450만원이상의 경우가 19.3%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 학력의 경우, 고졸인 경우가 1,383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학력의 경우에도 역시 고졸인 경우가 1,806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측정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청소년	1,725	50.0		
	여자청소년	1,724	50.0		
	소계	3,449	100.0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 내 수입	150만원미만	232	7.8	
		150만원이상 250만원미만	679	22.7	
		250만원이상 35만원미만	931	31.1	
		350만원이상 450만원미만	571	19.1	
		450만원이상	576	19.3	
		소계	2,989	100.0	
	아버지학력	중졸이하	364	11.9	
		고졸	1,383	45.2	
		대학·대학교 졸	1,114	36.4	
		대학원이상	197	6.4	
		소계	3,058	100.0	
		어머니학력	중졸	530	17.4
			고졸	1,806	59.4
			대학·대학교 졸	660	21.7
			대학원이상	44	1.4
소계	3,040		100.0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남자청소년: 1.70, 여자청소년: 1.92). 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다(Clemente and Kleinman 1977; Ferraro 1996; Stafford and Galle 1984; Warr 1984). 즉,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려움의 정도가 낮다고 하여 두려움에 따른 반응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두려움에 따른 반응관련 문항을 포함되지 않아 살펴볼 수는 없지만 기존 논의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특정 장소 기피 등의 생활에 변화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더 높고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범죄두려움으로 인한 생활의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성호 외, 1999).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려움에 따른 반응 역시 성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다음으로 범죄피해경험의 정도가 성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표 2>에 의하면 여자청소년의 경험(.23)이 남자청소년(.45)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의 성관련 폭력범죄피해경험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인지된 무질서 정도에서 사회적 무질서의 경우 남자청소년은 2.51점으로 여자청소년의 2.45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물리적 무질서의 경우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교 및 학교주변, 동네에서의 열악한 주변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는 남·여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관련 주요 변인의 성별 차이

(단위: 건, 명)

전체			성별				t	
			남자		여자			
	평균	전체수	평균	전체수	평균	전체수		
범죄에 대한 두려움	1.81	3,121	1.70	1,566	1.92	1,555	-9.091***	
피해경험	.34	3,121	.045	1,566	.023	1,555	3.415**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2.48	3,116	2.51	1,563	2.45	1,553	2.199*
	물리적 무질서	2.49	3,115	2.51	1,563	2.47	1,552	1.326
전통적 성역할	2.76	3,439	2.95	1,718	2.58	1,721	17.134***	

* p<.05 ** p<.01 *** p<.001

한편, 전통적 성역할 수용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은 2.95점으로 여자청소년의 2.58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을 더 잘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와 관련된 요인에서 남·여 차이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결론내리기에 한계가 있으며 보다 분명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성별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3.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측정모델에서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의 결과는 <표 3>와 같다. 먼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의 결과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학교 및 학교주변에서의 두려움에 대한 모수를 1로 고정시키고 ‘동네에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문항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측변인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피해경험에 대한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기 위해 ‘협박당하기’의 문항을 모수 1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변인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남·녀 모두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기 위해 ‘밤에 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의 문항을 1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세 변인에 대한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역시 남·녀 모두 세 변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물리적 무질서의 경우 역시 ‘동네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의 문항의 모수를 1로 고정시키고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나머지 5문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통적 성역할 수용도의 경우 ‘여자는 얌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답고 좋다’의 문항의 모수를 1로 고정시킨 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나머지 5문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3>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조모델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

구분	범죄에 대한 두려움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학교및학교주변)누군가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1.18 ^{***} (.91)	1.401 ^{***}
(동네)누군가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1.00(.81)	1.00()
구분	피해경험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2.72 ^{***} (.56)	3.41 ^{***} (.69)
협박당하기	1.00(.44)	1.00(.36)
집단따돌림당하기	.72 ^{***} (.48)	1.31 ^{***} (.51)
심하게 맞기	1.86 ^{***} (.63)	.43 ^{***} (.20)
구분	사회적 무질서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학교)비행 청소년이 많다	2.30 ^{***} (.76)	1.97 ^{***} (.76)
(학교주변)비행 청소년이 많다	2.35 ^{***} (.78)	1.84 ^{***} (.76)
(동네)밤에 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1.00(.34)	1.00(.36)
(동네)십대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 물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1.27 ^{***} (.42)	1.20 ^{***} (.42)
구분	물리적 무질서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학교)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1.98 ^{***} (.72)	1.81 ^{***} (.67)
(학교)뺑뺑기,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	1.86 ^{***} (.70)	1.85 ^{***} (.71)
(학교주변)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2.19 ^{***} (.80)	2.18 ^{***} (.78)
(학교주변)뺑뺑기,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	1.69 ^{***} (.69)	1.80 ^{***} (.72)
(동네)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1.00(.42)	1.00(.41)
(동네)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90 ^{***} (.35)	.83 ^{***} (.36)
구분	전통적 성역할 수용도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1.08 ^{***} (.42)	.92 ^{***} (.52)
여자는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보기 좋다	.72 ^{***} (.32)	1.04 ^{***} (.77)
여자는 얌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답고 좋다	1.00(.40)	1.00(.74)
남자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67 ^{***} (.67)	.50 ^{***} (.29)
남자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1.68 ^{***} (.76)	.31 ^{***} (.39)
남자는 남을 지배할 줄 알아야 남자답다	1.79 ^{***} (.77)	.52 ^{***} (.30)

*** p<.001 괄호안은 표준화된 계수임.

다음의 <표 4>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조모델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조모델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

구분	범죄에 대한 두려움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학교및학교주변)누군가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83	.97
(동네)누군가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65	.43
구분	피해경험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21	.18
협박당하기	.11	.91
집단따돌림당하기	.30	.20
심하게 맞기	.52	.35
구분	사회적 무질서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학교)비행 청소년이 많다	.58	.61
(학교주변)비행 청소년이 많다	.62	.58
(동네)밤에 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21	.14
(동네)십대 청소년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15	.17
구분	물리적 무질서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학교)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52	.58
(학교)뺑뺑기,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	.50	.45
(학교주변)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64	.52
(학교주변)뺑뺑기,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	.48	.51
(동네)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12	.17
(동네)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18	.07
구분	전통적 성역할 수용도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18	.27
여자는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보기 좋다	.10	.60
여자는 얌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답고 좋다	.16	.55
남자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5	.08
남자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58	.03
남자는 남을 지배할 줄 알아야 남자답다	.59	.10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관측변수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을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 경험과,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전통적 성역할 수용도 관측변수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질적 차원에서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조모델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

구분	남자		여자		성별 차이 계수 ⁴⁾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피해경험 → 범죄에 대한 두려움	2.253***	.148	2.374**	.133	1,713
사회적 무질서 → 범죄에 대한 두려움	.216***	.142	.143**	.116	-1,109
물리적 무질서 → 범죄에 대한 두려움	.247***	.179	.217***	.165	-.460
전통적성역할 수용도 → 범죄에 대한 두려움	-.063	-.051	.083**	.107	3,280***
R^2	.077		.070		
χ^2 (자유도)	10827.749***(496)				
RMSEA	.078				
CFI	.967				
NFI	.955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표 5〉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조모델 적합도⁵⁾와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를

4) 성별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 집단별 par 변수사이의 값을 통해 검증한다. 이는 회귀분석의 t 값과 같은 의미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에 절대값 2.58보다 크면 .001수준에서 유의미하며 2.33보다 크면 .01수준에서 1.96보다 크면 .05수준에서 성별로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의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경로계수의 차이는 표본오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5) χ^2 통계량은 모델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로 값이 작고 확률값이 크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표본크기가 크게 되면 제안모델을 기각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RMSEA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로 값이 .05~.08의 범위를 보일 때 수용할

살펴본 것이다. 먼저, 이 모델의 적합도는 χ^2 (자유도)는 10827.749(496)이며 p값은 .000이며⁶⁾ RMSEA 값은 .078, CFI 값은 .967, NFI 값은 .955로 나타났다. RMSEA 값이 .08이하로 수용할만 하며 CFI 값과 NFI 값이 .9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 다음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조모델의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를 살펴보자.

먼저, 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간 관계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피해경험은 남·여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간의 회귀계수에서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성별 차이 계수: 1.713). 또한 남·여 모두 학교 및 학교 주변 그리고 동네에 불량패거리이나 술 취한 사람 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범죄에 취약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관계에서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성별 차이 계수: 사회적 무질서 -1.109, 물리적 무질서 -.460).

한편, 전통적 성역할 수용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자청소년의 경우 그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성별 차이계수 : 3.280). 즉, 여자청소년은 전통적 성역할 사회화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전통적인 여성다움으로 인하여 범죄를 더욱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남자청소년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인 관계로 나타나(표준화 계수 -.051) 남성다운 모습을 강요하는 사회적인 압력으로 인해 범죄를 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Goody 1997, Sutton and Farrall 2005). 하지만 남자청소년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남자청소년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을 받아들인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두려움을 덜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만 전통적 성역할이란 변수가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 역시 전통적 성역할 사회화과정의 결과이다.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관계적 차원의 요인이 중요하다. 즉, 여자청소년은 타자와 밀접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위의 반응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CFI는 비교적합지수로 값이 .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 NFI는 표준적합지수로 기초모델에 비해 제안모델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나타낸 것으로 .9 이상이면 수용할만하다고 본다(배병렬, 2006).

6) χ^2 의 검증결과 p값이 .000 으로 분석모델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지수의 값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먼저 고려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성다운 태도와 행동을 하게 됨에 따라 결국 범죄를 더욱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여성다움이란 것은 모든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통제당하고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태도와 행동을 규정짓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종합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물리적 무질서가 .179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경험(.148), 사회적 무질서(.142)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 순으로 살펴보면 물리적 무질서(.16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해경험(.133), 사회적 무질서(.116), 그리고 전통적 성역할 수용도(.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무질서정도는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의 두려움에서도 그 영향력이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Ferraro, 1995; May and Dunaway, 2000). 한편 범죄피해경험은 성인과는 달리 청소년의 두려움에 있어서 영향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청소년의 피해경험 정도 아주 낮아 피해경험을 한 청소년의 수가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2 참고). 향후 연구에서 청소년의 간접적인 피해경험까지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구조모델에서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R^2)은 남자청소년의 경우 .077로 나타나 남자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경험과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로 7.7%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여자청소년의 경우 역시 약 7.0%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중상관자승의 값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인만으로는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함에 있어서 피해경험과 무질서 정도, 전통적 성역할 이외에 다른 중요한 설명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다른 다양한 요인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에는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가족간의 유대, 학업적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설명하거나 청소년의 문화적 요인, 대중매체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May and Dunaway, 2000; Wallace and May 2005). 즉, 청소년의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은 보다 다양한 측면의 요인을 포함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V. 결 론

이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 주요 변인들의 값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낮았고 피해경험은 높았으며 사회적 무질서의 인식 정도도 높았다. 그리고 전통적 성역할 수용도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과모형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남·여 모두 기존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피해경험,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정도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두려움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의 영향력은 여자청소년에게서만 정적인 관계로 나타나 성별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를 수 있었다. 하지만 남자청소년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과 두려움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 성역할사회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논의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강요받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은 여성에게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남성에게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수행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특정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의 두려움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에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처한 상황적 요인, 즉,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주요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둘러싼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전통적 성역할의 효과를 밝혀 왜 여성이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낄 수 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의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과 성별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짐을 밝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기 된다는 식의 수준을 넘어서 왜 높을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기현·임희진(2007). 패널데이터의 기초활용방법-한국청소년패널 사례분석.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 김지선(2004a).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2004b) 피해경험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성적 괴롭힘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pp. 217-263.
- 노성호·김지선(1998)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경험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6권, pp. 169-205.
-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1999). 청소년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철현(2005). 범죄피해경험, 이웃통합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 대학생에 대한 심층면접결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1호, pp. 55-77
- 배병렬(200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도서출판 청람.
- 이성식(2000).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한국공인행정학회보, 제10권, pp. 133-159.
- 최인섭·김지선(1997).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aumer, Terry L. (1985). Testing a general model of fear of crime: data from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22 No. 3, pp. 239-255.
- Braungart, Margaret M., Braungart, Richard G. and Hoyer, William J. (1980) Age, sex, and social factors in fear of crime. *Sociological Forces*. Vol. 13, pp. 55-66.
- Clarke, Alan H. and Lewis, Margaret J. (1982)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22, pp. 49-62.
- Clemente, Frank and Kleinman, Michael B. (1977) Fear of crime in the united states: a multivariate analysis. *Social Fores* Vol. 56, pp. 519-31.
- Ferraro, Kenneth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Albany NY: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_____(1996) Women's fear of victimization: shadow of sexual assault? *Social Forces*. Vol. 75 No. 2, pp. 667-690.
- Franklin, Travis W., Franklin, Cortney A., and Fearn Noelle E. (2008)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disorder, and social integration model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justice research*. Vol. 21, pp. 204-227.
- Garofalo, J. (1979). Victimization and the fear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16, pp. 80-97.
- Goodey, J. (1997) Boys don't cry.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37 No. 3, pp. 401-418.
- Gray, J. (1991). *The Psychology of fear and stress*(2nd ed.). New York: McGraw Hill.
- Keane, Carl. (1995) Victimization and fear: assessing the roles of offenders and offens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July, pp. 431-55.
- LaGrage, R. L., Ferraro, K. F. and Supancic, M. (1992)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Role of social and physical incivilities. *Th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29, pp. 311-334.
- Madriz, Esther I. (1997) Images of criminals and victims : a study on women's fear and social control. *Gender & Society*. Vol. 11 No. 3, pp. 342-356.
- May, David C. and Dunaway, G. R. (2000) Predictors of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at school among adolescent. *Sociological Spectrum* Vol. 20, pp. 149-168.
- May, David C. (2001). *Adolescent fear of crime, perception of risk, and defensive behaviors :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violent delinquency*. Criminology studies. v. 15
- Moeller, Gertrude L (1989)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the effect of neighborhood racial composition. *Sociological inquiry*. Vol. 59, pp. 208-21.
- Moore, Simon C. and Shepherd, J. (2007) Gender specific emotional responses to anticipated crim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Vol. 14, pp. 337-351.
- Parker, Keith D. and Ray, Melvin C. (1990) Fear of crime: an assessment of related factors. *Sociological Spectrum*. Vol. 10, pp. 29-40.

- Reid, L. and Konrad M. (2004) The gender gap in fear: assessing the interactive effects of gender and perceived risk on fear of crime. *Sociological Spectrum*. Vol. 24, pp. 399-425.
- Routree, Pamela Wilcox. (1998) A reexamination of the crime-fear linkag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5, pp. 341-72.
- Scott, Hannah. (2003) Stranger danger: explaining women's fear of crime. *Western Criminology Review*. Vol. 4 No. 3, pp. 203-214.
- Snedker, Karen A. (2006) Altruistic and vicarious fear of crime: fear for others and gendered social roles. *Sociological Forum*. Vol. 21 No. 2, pp. 163-195.
- Stafford, M. C. and Galle, O. R. (1984). Victimization rates, exposure to risk, and fear of crime, *Criminology*, Vol 22, pp. 173-85.
- Sutton, Robbie M. and Farrall, Stephen. (2005) Gender,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and the fear of crime: are women really more anxious about crime?.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45 No.2, pp. 212-224.
- Thompson, Martie P. and Norris, Fran H. (1992)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0 No. 1, pp. 97-119.
- Wallace, Lisa Hutchison and May, David C. (2005) The impact of parental attachment and feelings of isolation on adolescent of crime at school. *Family Therapy*. Vol. 32, pp. 157-173.
- Warr, Mark. (1990) Dangerous situation: social context and fear of victimization. *Social Forces*. Vol. 68 No. 3, pp. 891-907.
- Will, J. A. and McGrath, J. H. (1995) Crime, neighborhood perception and the underclass: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rime and class posi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23 No. 2, pp. 163-176.

ABSTRACT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Fear of Crime

Choi, Soo-H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gender difference as a determinant in the fear of crime among adolescents. This study began from the position that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adolescent fear of crime. This study found that the predictors of fear among adolescents are similar to those of adults.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at male and female adolescent fear is influenced differently. Thus, fear of crime among boys is affected through victimization and incivility. However, fear of crime among girls is affected through victimization, incivility, and gendered sex roles. This is because sex roles appear to be a more important cause among girls when compared to boys.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when it comes to creating prevention programs since dealing with fear of crime among adolescents obviously requires a gendered approach. These findings also suggest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iversify the search for the causes of adolescent fear of crime.

Key Words : adolescent fear of crime, fear of crime, gender

투고일 : 12월 15일, 심사일 : 1월 20일, 심사완료일 : 2월 11일

* Associate Research Fellow, Ph.D in sociolog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